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8월 10일 (제 1318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사색(思索)

‘사색(思索)한다’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진다’이다.

나는 사색을 즐긴다. 마치 광활한 공간 속을 혼자 걷듯, 무한한 생각이란 공간 속을 혼자 마음껏 헤엄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다시 보게 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재발견하게 된다. 맞다. 사색(思索)하는 자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원천으로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검색은 잘하지만 사색은 안 한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몇자 검색하면 정보가 짝 뜨는데, 굳이 사색할 필요가 있나,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사색을 하나?’ 한다. 그러나 No! 사색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단다. 남북전쟁 당시 참모들이 전쟁에 관한 급한 결정을 요구했을 때도, 링컨은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며 성경을 읽고 깊은 묵상에 잠겼다.

어느 참모가 “대통령님, 지금은 생각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하자 링컨은 “나는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의 창고를 채워야 한다네. 생각 없는 행동은 결국 후회를 부를 뿐이야.”라고 답했단다.

그렇다. 사색 없는 행동은 충동이 되지만, 깊은 생각은 지혜로운 결정을 낳는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기도와 사색의 시간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사명을 정립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도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사색해보자. 멈춰야 들리고, 멈춰야 보이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시46:10). 사색은 영혼의 숨 고르기다. 영혼의 번잡함을 멈추고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리라.

하계산상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미쳤단 소리를 들은 자들이 기적을 맛보았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국이 가마솥처럼 끓고 있는 8월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산상집회는 영적 전지훈련이기에 성산을 찾은 성도들의 각오와 자세가 남다르다. ‘기필코’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리라 작심한 듯하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첫날, ‘미쳤단 소리를 들은 자들이 기적을 맛보았다’는 주제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기도원에 온 목적이 무엇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산에 올라왔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을 초월하지 않

않고 나가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 바울 또한 스스로도 예수에 미쳤다고 이야기하며(행26:24~25), 세상이 나를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세상을 못 박았노라고 선언했다(갈6:14~17).

나도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미친놈 소리 들었고, 집에서 쫓겨났다. ‘미쳤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 어떻게 안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어찌 안 미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나도 남들처럼 하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다. 기도원에 왔으니 ‘능력 받아야겠다, 병 고침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기까지 와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 거다.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다(눅18:27).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가면 본인 잘못이다.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변



2025 하계산상집회 첫주(8월 4일~7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으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병을 고쳐야겠다, 성령을 받아야겠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된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쳐야 한다.

인류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을 보라. 또 믿음의 장에 기록된 자들을 보라. 다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자들이다. 전기를 발명한 사람,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을 발명한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인류 문명사에 공헌할 획기적인 발명을 하였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막3:21).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퇴근하면 교회로 달려갔고, 성가대 장의자에서 자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20일이 지났는데, 우레와 같은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보라!’ 그 뒤로 산에 올라 미친 듯이 기도하는 중, 비가 소나기로 내리는데, 그 비가 다 내 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눈을 떠보면 그냥 별건 대낮이었단다. 그 뒤로 나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대면 병이 낫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지체없이 ‘나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도하여 능력 받아 성공했다’고 말한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밤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해외집회에 나가시면 오전에는 세미나를 해주신다며, 둘째 날 아침에는 탁자를 놓고 세미나 형식으로 설교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네 앞의 재앙을 막기 위함이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계시에 순종하라.”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려고 입을 짹 벌리는 새끼 새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윤예녹 생도**



풍성한 점심식사(야외식당)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셨다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기도원 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3:1~14)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에 미혹되지 말라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 끼니 간데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 말만큼 집중할 만한 뭔가를 선택하지 않고 이것 했다 저 것 했다 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격언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 이것이 성공의 요인입니다.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루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것을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이를 것 아닙니까? 과녁이 있어야 활시위를 당길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고전9:26~27)고 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표가 없는 자는 향방 없이 달리는 자와 같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자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를 쳐야지 허공만 치면 어찌 됩니까? 마라톤 선수가 방향 없이 뛰면 어찌 됩니까? 잘 달린들 끝낼 수 있겠습니까? 배가 목적지가 없다면, 비행기가 목적지가 없다면 어찌 됩니까? 삶의 목표가 없는 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들을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한나, 금의환향을 목표로 가진 야곱,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하겠다고 결심한 느헤미야, 쫓겨나서 향하여 달린 사도 바울,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에 온몸을 던진 신 예수님, 이들 모두 성공자들입니다. 목표를 설정했기에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들과처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 초에 ‘세계교구’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도 몇 명을 둔 지하고 회에서 감히 이런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고로 목표는 좀 크게, 좀 높게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말도 안 돼.’ ‘헛꿈 꾸네.’ 할 정도로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명문대에 가리라’는 목표를 세운 수험생과 ‘아무 대학이나 가지’ 하는 수험생의 공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입을 넓게 열라”(시81:10)고 하신 것입니다.

과녁이 있어야 화살을 쏠 수 있다

여러분, 목표를 확실히 세웠다면,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입니다.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패이고 구멍을 낸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햇볕에 돋보기를 대고 한 곳을 오래 비추면 검은색

종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아름다워나무라도 한 곳을 집중해서 도끼질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름다워나무같이 커도, 바윗덩어리같이 단단해도 집중하면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집중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첫째는 목표 기한을 두지 않아서입니다. 선택은 했는데,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기한을 두지 않으니 차일피일 미루고, 흐지부지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겠지’ 하면서 세월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 기한을 두면 집중하고, 더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집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보이는 것 다 보고, 들리는 것 다 참견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오셨겠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많았겠지요. 마르다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순간 마르다는 화가 치밀어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내보내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10:41~42)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초대’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죠. 마리아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해야 옳은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하니 예수님이 ‘그것이 옳다, 좋은 일이다’ 하신 것 아닙니까? 선택했으면 귀는 막아야 합니다. 경주마

들이 양쪽 눈 옆을 가린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사슴을 잡겠다고 나섰던 자가 지나가는 토끼를 보고 잡으려 뛰어들었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토끼에 미혹되는 순간 사슴을 놓치거든요. 토끼가 지나가든 말든, 쫓고 있는 말든 오직 사슴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산삼을 캐러 갔으면 기필코 산삼을 캐야지, 도라지를 발견하고 도라지나 캐서 내려온다면 목적을 이뤘다 할 수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일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으로 성공을 이룬 성경의

두 인물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하나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갑절의 영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왕하2:9). 그리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 벧엘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를 계속 ‘가라, 가라’ 하며 밀어냈지만, 엘리사는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맹세까지 하며 필사적으로 엘리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얻습니다. 엘리사가 승전하는 것을 본 엘리사가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겂옷을 가지고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며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목적인 바대로 엘리사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또한 갑절의 능력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사의 기적이 7번 기록된 것에 비해 엘리사의 기적은 갑절인 14번 기록된 것을 봐도 엘리사의 목적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쫓은 사람이 엘리사 외에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엘리사처럼 확고한 목표가 없었기에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그만두라’, ‘스승의 뜻을 따르라.’고 설득하고, 만류하고, 회유하고, 미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기에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불굴의 정신을 가지라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그 나라에서 면류관과 상을 받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그는 선택한 것에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3:13~14). 미혹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오직 목표를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마귀도 목표를 세웁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편한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나 가족을 통해 유혹하고 미혹하여 목표를 잊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3:3)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택은 잘했으니 집중해서 기필코 목표한 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았으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 실족케 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이고(마5:29~30), 세상 것들에 미혹되어 목표를 상실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에도 집중력이 필요하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4:24),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마6:7),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하신 것입니다(행6:4).

여러분, 성취는 선택과 집중의 열매입니다. 선택이 없으면 시작이 없고, 집중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하면, 성취하고 싶거든 ‘선택,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제27회 전국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 7월 31일~8월 2일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축복을 받아보자!



제27회 전국 대학 · 청년 연합수련회

2025년 제27회 전국 대학 · 청년 연합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역사가 넘쳐나는 수련회였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가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등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천여 명의 청년들이 이 성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던 세계 목회자 세미나 때처럼 다양한 언어의 통역 부스가 설치되었고, 청년들조차 예수중심교회의 글로벌화에 서로 놀라는 기색이었다. 또한 이 청년들을 먹이기 위해 전국 교역자들은 봉사자로 소집되어 때마다 시마다 청년들에게 뷔페식의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하였다. 기도원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수련생들조차 연신 ‘원더풀’을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무엇보다 이번 연합수련회의 묘미는 총회장 목사님의 연속된 강의였다. 목사님은 행사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수련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나만큼 성공한 강사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저녁 세미나 두 번과 비전 세미나까지 직접 인도하시며 이번 수련회에 최선을 다하셨다.

첫날 저녁 세미나는 ‘오늘 내가 하는 간증이 거짓말이라면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포문을 여셨다. 목사님은 41년 사역 가운데 매 순간 역사하신 예수님

을 말씀하시며, 집안의 핍박과 반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음성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이는 이 수련회에 새신자로 온 청년들이 30%에 육박했기에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친절한 가르침이었다. 목사님은 2시간을 강의 하신 후, 청년들을 안수하시며 1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셨다. 이에 많은 청년들이 총회장 목사님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둘째 날 비전 세미나는 ‘목적 지향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공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이다. 사슴을 쫓는 자가 도중에 토끼에 미혹되면 되겠는가. 그런 자는 절대 사슴을 잡을 수 없다. 오직 목적을 향해 눈만 뜨고 귀는 막고 가라. 주변의 소리, 환경을 보지 말고 목표한 바를 향하여 질주해야 한다.

또 이걸 보라. 이 복숭아는 처음부터 복숭아로 만들어진 거다. 사과와 사과요, 자두는 자두다. 그런데 복숭아가 ‘사과가 되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자두가 ‘나는 복숭아가 되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것을 찾고 계발해야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특히 목사님은 2,100년까지의 비전을 선포하시며, ‘나도 150살까지 계획이 있다! 앞으로 너희는 120을 넘어 150세까지 살게 된다. 너희는 이 세월을 계획하고 있는

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는 말씀에 청년들조차도 놀랐다. ‘연장자인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라며 저마다 꿈을 향한 도전의식에 불타올랐다.

목사님의 귀한 가르침 앞에 처음 수련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세상의 성공세미나나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왜 듣습니까? 인생의 지혜와 참 진리가 이곳에 가득한데요. 어느 인생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목사님의 강의에 힘이 생기고, 비전을 품고, 큰 위로를 받고 갑니다.” 매 강의 시간마다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었다. 앞의 청년의 말대로 어느 누가 저토록 피땀을 쏟아가며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나라도 더 얻게 하려고 할까? 그런 분을 우리 목사님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2박 3일 동안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는 귀한 배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시간이다. 수련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대미문의 수련회를 체험한 청년들이여! 2,100년까지 여러분 삶에 전대미문의 축복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란다. 아멘!

송현해 생도

2025 서울·인천 연합 여름성경캠프

서울교회와 인천교회의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캠프가 8월 3일~5일에 걸쳐 인천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21~22).

서울과 인천 교회 유아유치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2025년 여름성경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서울·인천 연합으로 치러진 캠프라 더욱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첫 연합 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을 공유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교단의 표어인 ‘전대미문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처럼, 이번 캠프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귀한 경험을 선물하고자 유아유치부 전도사들과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인천 유아유치부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준비해주셨고, 서울에서는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며 서로 협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악한 영은 이 연합 캠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온전함을 알았는지, 준비하는 교사들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질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직장 문제로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교사

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이 악한 것들의 꾀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함께 금식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주셨습니다. 교사들의 삶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기적 같은 은혜도 허락해주셨습니다. 오래전 청년부에 출석했던 한 자매가 결혼 후 교회와 멀어졌음에도 자녀들을 캠프에 보내고자 함께 참석했고, 지교회에서도 귀한 아이들을 연합 캠프에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복을 받은 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 캠프는 주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으로 이동하여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개회 예배부터 모든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은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심을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며 마음에 심는 귀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천 유아유치부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마음을 쏟아 만든 정성이 느껴졌고, 아이들 역시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의도에 따라 그 어떤 보물보다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는 인천 교회의 장영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진 우리는 악한 것들로부터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셨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캠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집회에서는 이시대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이들이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린 영혼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주입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악한 것보다 선제적으로 심어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는 그 어떤 보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보물이심을 아이들이 분명히 알게 된, 귀하고 복된 캠프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름성경캠프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교회 유아유치부 이삭 전도사

